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기반과 학문적 특성에 관한 연구*

홍 선 미

(한신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실천의 학문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고려한 인식의 틀 속에서 이론적 정체성과 학문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사회복지실천이론의 분석을 위한 구성적 특성과 이론적 속성을 살펴본다. 실천에 영향을 주는 구체성의 정도에 따라 페러다임, 시각, 이론, 모델, 실천 지혜 등을 기능적으로 분류하여 사회복지실천지식의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각기 다른 수준에서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의 역할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지식의 객관성과 주관성, 사회적 변화와 기능적 적응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인식론적 입장과 학문적 시각을 폭넓은 사회복지실천의 이론적 스펙트럼 내에서 분석한다. 실천지식에 관한 이론적 분석은 사회복지실천의 존재론적 가치와 과학적 이론화 논쟁 속에서 각각의 유용성과 한계를 비교하며 사회복지실천에 적합한 공통적 지식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실천학문의 정체성과 전문화, 학문적 맥락과 실천현장의 적용성과 관련된 논의를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중심가치와 통합된 이론체계의 구성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실천학문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식기반의 구성을 위한 탐색과정은 학문의 내적 일관성을 높일 뿐 아니라 외적으로 전문직의 역할과 전문화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로서 사회복지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함의를 갖는다.

주제어: 실천이론, 실천지식, 실천학문의 정체성, 지식기반

1. 서 론

전통적 학문선을 교차하며 학문들 간의 공통영역을 넓히는 사회과학의 재구조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복지실천학문의 이론적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은 시대적 흐름을 벗어나는 듯하다. 사회복지학은 외형적으로 독립된 학문영역을 확고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용적으로 타 분야와의 교류가 빈번하며 이론적으로 주류 사회과학 분야에 의존하는 특성을 갖는다. 사회복지 실천분야에서 접

*이 논문은 2004년도 한신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하는 다양한 범주의 지식은 각기 다른 학문적 배경을 근거로 상이한 분석틀을 제시하기 때문에 취약한 지식기반을 구성하는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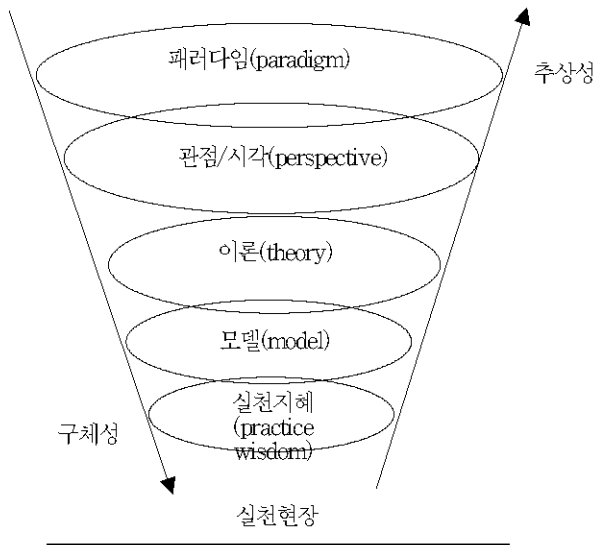
실천이론은 가치기반의 전문직(value-based profession)이라는 특성에 기초해 실천의 본질과 맥락을 중심으로 주관적 실재를 설명하게 된다. 즉, 실천현장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와 사고는 실천의 가치와 목표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실천학문의 지식기반은 사회복지 전문직이 추구하는 가치와의 연관성 속에서 고려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육과 전문화과정을 통해 사회복지 실천의 궁극적 목적은 상당 수준 합의가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목적수준의 가치를 실천과정 내로 조작화시키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떨어진다. 이는 인간과 환경이라는 이중적 관점과 다양한 수준의 체계에 개입하는 사회복지실천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나, 한편으로는 개인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 이상적 가치와 실천적 기술을 구체적으로 연결시킬 개념적 준거틀의 문제로 비취진다. 현상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통해 전문가에게 내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념적 준거틀(conceptual framework)은 타당한 이론을 선택하며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회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시각이 구체적인 개입방향과 방법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 전문직이 일관된 목표와 정체성을 가진 학문으로 성장하는 데 기초가 되는 인식의 틀을 찾고자 하는 필요성에 근거하여, 이론체계의 구성 방향과 실천현장에 기반을 둔 지식의 이론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존재론적 의미와 기능을 반영하며, 교육현장과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실천 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식기반이 구성될 수 있는가?라는 연구문제의 탐색을 위해, 본 연구는 첫째, 상이한 이론적 근거와 시각을 반영하며 다양한 유형과 수준에서 개발되고 적용되는 사회복지 지식의 구성적 특성과 이론적 속성을 2장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실천 분야에서 활용되는 지식의 특성을 구성수준과, 이념적, 인식론적 요소에 따라 살펴보는 것은 지식의 형태나 이론 간의 인식론적, 이념적 차이가 사회복지사의 인식과 문제에 대한 이해의 틀을 구성해나가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는 실천학문의 이론적 기반구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실천지식의 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구성적 특성과 이론적 속성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되는 지식들로부터 실천현장의 욕구와 상황을 반영하며 사회복지실천의 인식론적 틀 내에서 의미를 갖는 지식을 여과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적합한 실천학문의 지식기반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를 위해, 3장에서는 사회복지실천의 존재론적 성격을 반영하며 전문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실천지식을 검토하고, 지식의 유용성과 적용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맥락에 기초한 지식 개발의 가능성을 알아본다. 사회복지실천의 중심가치와 통합된 이론체계를 구성하는 과정은 학문의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외적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서 사회복지실천의 학문적 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노력은 실천을 뒷받침하는 지식의 성격이 모호하며 각기 다른 학문적 근거들을 파편적으로 제시하는 상황 속에서 적합한 지식의 선택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실천가들의 실천의 근거나 방향성에 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함의를 갖는다.

2. 사회복지 실천이론의 분석틀

1) 구성적 특성

학문의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이론적 구성의 당위성 때문에, 사회복지실천지식은 사회복지사의 실천 활동을 직접적으로 안내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개인으로부터 환경에 이르는 폭 넓은 사회복지의 관심영역과 이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의 필요성으로 인해, 사회복지실천분야에서 활용되는 지식은 대부분의 사회과학 및 인접학문의 지식까지 포괄한다. 미국사회사업교육협의회(The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1992a, b)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실천 교육을 위한 교과내용에는; 사회복지실천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 문화, 과학, 역사, 예술, 철학 등을 포함하는 기초교양(liberal arts)과목을 비롯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human behavior and the social environment),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 실천과 실천기술(practice and practice skills), 다양성(Human diversity), 사회적, 경제적 정의(promotion of social and economic justice), 위험집단(populations-at-risk),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social work values and ethics), 현장실습(field practicum) 등이 포함된다.



<그림 1> 사회복지지식의 구성수준

다양한 분야의 내용으로 구성된 실천지식은 실천에 영향을 주는 구체성의 정도에 따라 패러다임, 시각, 이론, 모델 등의 형태로 구분된다. 기능적으로 분류된 이들 지식은 세계관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의 틀을 구성하는 것으로부터 구체적인 실천기술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수준에서 실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호한 구분과 불규칙한 연결성으로 인한 혼란 때문에 이해의 차원을 넘어 단절적으로 이들을 분류하는 것의 의미는 크지 않으나, 구체적인 수준의 이론과 모델로 분류되는 과정에서 해당 관점이 갖는 흐름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가를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은 있다.

패러다임(paradigm)은 개념적 틀로서 세계관을 지배하고 현실에 대한 인식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론과 실천적 경향을 포함하는 추상적인 수준의 패러다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문의 인식론적 변화와 함께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학문의 외적환경인 사회의 분위기, 사상적 조류, 정치적 사건 등을 통해 사회의 주도적인 패러다임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필요도 있다. 사회복지실천 내부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의료적 개념으로부터 생태적 개념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20년대부터 1960년대의 사회복지사들은 실천과정을 의료적 패러다임 하에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과 동일시하면서 개인의 심리치료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학문적 관심은 자본주의 사회의 개인주의적 가치와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사회적 욕구를 반영하면서 전통적인 사회복지실천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자리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환경적 요인에 대한 중요성과 탈상황적인 심리치료적 접근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면서 새로운 이해의 틀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특히, 도시빈민의 복합적인 문제와 함께 늘어나는 가족과 아동, 청소년, 노숙자의 문제는 사회 조건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인간과 환경사이의 적응적 관계를 중심으로 인식의 틀을 재구성하였다. 생태적 개념의 패러다임은 전통적인 패러다임에 비해 사회체계와의 상호의존적인 관련성을 중심으로 개인을 이해하는 인식의 틀을 넓혀주었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기존의 사회 질서를 인정하며 갈등적인 사회관계를 간과하는 한계를 지적받는다. 80년대 이후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강조하는 소비자중심의 패러다임이 등장하여 점차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인 흐름과 생산적 복지라는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이 지배적인 현실에 비추어볼 때, 인간과 환경사이의 이중적 관점을 반영하는 생태적 패러다임은 사회복지실천의 상당기간 주도적인 패러다임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패러다임의 하위 수준에 있는 관점/시각(perspective)은 개념적 준거틀(conceptual framework)로서 관심영역과 가치, 대상들을 규정하는 사고체계이다. 사회복지실천의 관점은 사회복지의 다양한 이데올로기적인 스펙트럼을 반영하면서 보수주의적인 관점으로부터 급진적 관점까지 다양하게 구성된다. 관점을 이분법적으로 단순히 나누어 볼 수는 없으나, 개인과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가치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점들 간에 상호 배타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가치개입적인 사회복지실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인의 적응과 사회변화라는 상이한 개입목표 간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따라서, 인간과 환경에 대한 동시적 관심 속에서 어떠한 이론도 통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생태체계적 관점의 주장은 다양한 관점들을 상위수준에서 포괄하는 패러다임 수준의 인식 틀이 없는 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론(theory)은 특정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이나 개념, 의미의 집합체로서, 관점/시각의 추상성을 한 단계 구체화한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이론은 가치나 의미, 사고 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일반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관점/시각에서 다루는 내용을 조작화시키고 경

험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을 요구한다. 사회과학적 지식을 기초로 파생된 사회복지실천학문의 태생적 배경으로 인해,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이론은 대부분 절충주의 형태를 띠며 사회복지실천과정에 유용하도록 타 분야의 이론들을 조합 또는 변형한 것이 많다. 특히, 개인이나 가족, 소집단을 대상으로 클라이언트의 심리사회적 역기능의 치료와 예방에 개입하는 심리이론들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내적욕구와 맞물려져 사회복지실천이론과의 구분이 없이 주요이론으로 사회복지실천의 교과과정 내로 흡수되었다. 정신역동이론, 인지행동이론, 인본주의 이론과 같은 기초 심리이론은 사회복지 실천모델의 형태로 구성되어 핵심적인 실천이론으로 받아들여진 대표적인 예¹⁾이다. 최근에는 기능적 사고를 대표하는 정신역동이론(psychodynamic theory)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임파워먼트이론이나 담론이론(discourse theory)등 클라이언트 문제에 대한 인식과 사회문제에 대한 상이한 시각과 분석을 제공하는 다수의 이론들이 소개되고 있다.

추상적인 용어로 구성된 이론은 실제 실천상황에서 사회복지사에게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알려주는 데에 한계가 있다(Hepworth et al., 1997). 반면, 모델(model)은 문제와 상황을 분석하고 개입방법을 계획하고 실천과정을 진행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술적 적용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실천 활동의 원칙과 방식을 구조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사회복지실천에서 활용되는 모델은 행동과학이론(behavioral science theories)을 배경으로 기술적 과정을 도출한 것(정신분석 이론과 정신분석 모델, 행동주의 이론과 행동수정 모델, 인지 이론과 합리적 정서적 치료 등)이 있는 반면, 이론적 기반과 무관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모델(과제중심 모델(Reid, 1992))이 있다. 사회복지분야의 실천 모델은 심리이론을 기초한 것이 다수이나, 생활모델(life model)과 같이 인간과 환경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생태체계적 시각에 기초한 모델이나(Germain & Gitterman, 1980), 절충주의적 성격으로 단일한 이론적 배경을 갖지 않는 모델(Goldstein, 1984)도 있다. 한편, 개인이나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천모델에 비해, 지역사회 대상의 접근방법과 환경적 개입모델은 추상적 수준의 사회과학적 지식으로부터 기술적 개입과정을 구체화하거나 경험적 연구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이유로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도시빈민의 문제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실천현장이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대상의 개입기술과 전략이 다양한 실천모델의 주요 레퍼토리(repertoire)로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실천지혜(practice wisdom) 또는 직관(intuition)/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도 실천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는 지식의 종류이다. 이들은 의식적으로 표현되거나 구체화될 수 없는 지식으로서 개인의 포괄적 가치체계와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도출된다. 실천을 통한 앎(knowing-in-action/learning-by-doing /reflection-in-action)을 강조하는 사회복지실천에서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이러한 유형의 지식은 사회복지사의 인지적 틀(cognitive schema)을 통제하면서 사회복지사의 활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실천지혜와 같이 사회복지사의 직관에 기초한 비공식적인 지식은 행동과 사회현상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틀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유용성을 입증 받을 수 없다는 논리가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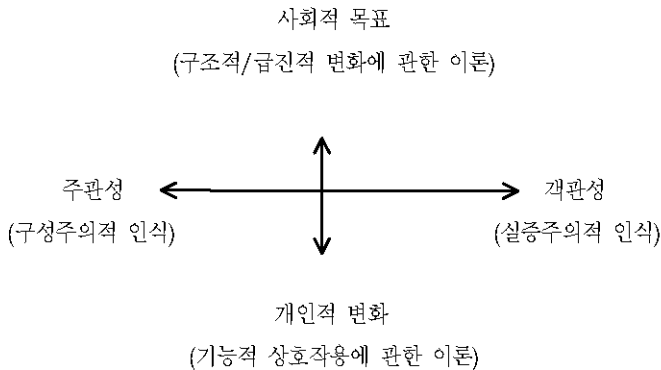
1) 대표적인 심리이론들 이외에도 인간행동의 인지, 정서, 행동과 관련된 지식,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과 관련된 이론, 대인관계와 가족 치료, 위기개입, 장/단기 심리치료 이론 등도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학문적 배경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Austin, 1986).

배적이다. 지식의 개념을 확인 가능한 사실에 기초한 인지적 산물로 제한하는 경우, 시פור인(Siporin, 1988)이 언급한 바와 같이, 직관적, 비이성적, 상상적 사고 등은 의미를 인정받지 못한다. 실천지혜가 얹힌 다양한 방식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스칼(Scott, 1990)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실천지혜를 개념화하기 위한 실천가의 노력이 요구된다. 즉,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실천으로부터 성공적인 원리를 추출해 내고 이를 구조화하고 입증하기 위한 방법들—정보를 조직하고 해석하는 인지적 도식(cognitive schema), 민속지학적 연구방법(ethnographic methodology), 반영적 토론과 사례간 비교가 가능한 지도감독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실천연구자(practice researcher)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Viduka-Sherman & Reid, 1990).

2) 이론적 속성

지식(knowledge)은 사물이나 현상에 관한 객관적 사실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을 조직하고 객관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상이한 견해를 갖게 되며, 이는 객관적 지식에 주관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지식은 현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공유된 내용을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이해와 보편성을 끌어내며 합법화되는 과정을 거쳐 이론으로 인정받게 된다. 결국, 지식과 이론들은 진리와 구분되는 한계 속에서 서로의 객관성과 합리성, 유용성을 입증하려는 인식론적 논쟁으로 발전되며 이 과정에 정치적, 사회적 맥락이 결합된다고 본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두 차원의 이론적 스펙트럼은 지식의 유형보다는 지식의 가치 기반과 철학적 입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존재론적 가치와 과학적 이론화 논쟁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그림 2). 사회복지실천을 둘러싼 이론적 논쟁은 실천을 행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복지의 다양한 학문적 성격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림 2> 사회복지실천이론의 이론적 분석틀

(1) 인식론적 논쟁(Epistemological debates): 지식의 객관성 대 주관성

사회복지실천의 이론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식론적 논쟁은 지식의 객관성과 주관성에 관한 인식의 차이로 요약될 수 있다. 실증주의(positivism)는 일반화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지식을 찾고자 한다. 모호한 사실보다는 경험이나 관찰을 통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만을 지식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면 문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개입 또는 치료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Hudson, 1978). 한편, 대조적인 입장을 취하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는 일반화된 의미보다는 현상학적 환원과정(phenomenological reduction process)을 통해 직관적으로 파악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보편적인 본질에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해석과 지각의 차이, 맥락에 따라 달리 이해될 수 있는 사회적, 개인적 경험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그 불확실성의 의미를 탐색하도록 한다(Wakefield, 1995).

사회의 철학적, 사상적 흐름인 모더니즘적 사고와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와 맥을 같이하는 두 입장의 차이는 연구방법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1970년대 인식론적 논쟁의 중심에 위치한 실증주의는 체계적이고 명확한 과학적 지식과 실천의 효과성에 관심을 갖는다. 이후, 미국에서 이루어진 사회복지실천 분야의 많은 연구들이 과학적 근거를 강조하면서 실증적 실천과 경험적 연구방법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Reamer, 1983).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이후 실증적 연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²⁾ 이러한 경험주의적 흐름은 구체적이며 합리적인 지식의 활용과 효과성의 검증을 통해 사회복지 실천의 책임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자연과학적 지식체계의 틀이 갖는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흐름을 비판하고 있다. 사회구성주의자들의 주장과 같이, 현실의 의미와 사회적 상황의 복잡성을 간과하는 실증주의의 인식과정은 많은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Imre, 1984; Saleebey, 1994). 즉, 인식주체가 사실적 존재인 인식대상을 거울과 같이 반영한다는 실증주의의 가정은 의미의 존재인 인간의 특성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또한,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경험적 사실에 의존하여 인과관계를 발견하는 방식은 해석과 통찰을 통한 인식의 산물을 고려치 않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각 개인의 주관적이며 상황적인 요소를 고려하며 다양한 삶 속에 개입하고자 노력해 온 실천적 노력과 사회적 의미는 걸러지고 최소한의 경험적 지식만이 남게 된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효과성을 검증받으려는 전문가의 욕구와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실증주의로의 편향성은 지속될 수 있다. 실증주의적 양적 연구방법이 특히 지배적인 우리나라의 경우, 인식론을 둘러싼 대립이나 논쟁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으며, 따라서 실증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대안적인 노력도 아직은 부족하다. 최근에 이루어진 경험적 조사연구는 임상적 실천모델 또는 기술의 단기적 효과성에 관한 주제들이 다수를 차지한다(Rubin, 1985; Peterson, 1984). 이는 구조화된 개입방법과 측정 가능한 효과성을 중심으로 연구의 타당성을 입증받기 때문에

2) 연구방법의 변화양상을 분석한 홍경준(2002)의 연구에서는 1988년 이후 양적 연구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979-1987년의 21.1%에서 1988-1994 47.8%, 1995-1999년 57.4%, 2000-2002년 69.2%로 증가).

이에 적합한 주제들이 선호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실증주의 인식론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는 후기실증주의(post-positivism)는 제한된 임상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평가도구의 개발과 복합적이며 체계적인 연구영역의 확대를 강조하며 실증주의의 흐름을 잇고 있다(Briar, 1990; Heineman, 1981). 또한, 다양한 인식론적 방법으로부터 상호보완적 입장을 합성하는 인식론적 다원주의(epistemological pluralism)는 인식론적 논쟁의 합일점을 찾는 새로운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Peile, 1988). 이러한 절충적인 노력은, 실천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실천현장의 객관성을 증가시키는 한편, 사회복지실천의 맥락과 과정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을 둘러싼 인식론적 논쟁을 피해 지식을 얻는 자체를 목표로 하는 실용주의적인 학문적 입장(pragmatist epistemology)은 인식론을 둘러싼 논의수준을 지식의 경험적 수준을 결정하는 연구방법에 머물게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이념적 갈등: 사회적 변화 대 기능적 적응

오정수(1997)는 사회복지학 연구자의 이념적 정향에 따라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의 이중구조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념적 분화는 사회정책과 실천의 경계면 아니라 실천 내에서의 접근 방법과 모델의 선택에서도 나타난다. 대부분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각이 개인 대 구조적 해석의 문제로 엇갈리면서 상이한 분석틀을 제시하는 것과 같이, 사회복지실천에서 발견되는 (이데올로기적) 시각의 차이도 유사한 형태를 띤다.

인간의 심리 내적 갈등에 관한 정신 치료적 상담기법이나 대인관계에 초점을 둔 심리이론과 모델들은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해소 또는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지식과 기술로서 사회복지 실천의 관심영역에 일찍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정신역동적 접근(psychodynamic approach)과 같이 의료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접근방법은 사회복지실천의 기본가치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 즉, 사회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결함에 두고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초점을 두는 제한된 시각은 폭넓은 삶의 현장에서는 적용가능성이 떨어지며 결과적으로 실천적 의미도 줄어든다. 우리나라에서도 심리이론은 사회복지사의 실천기술을 교육하는 교과내용의 핵심적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학과의 기초 교과목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이론³⁾들이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형태와 수준으로 걸러지지 않는 경우 실천지식의 혼재된 시각과 접근방식은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중심적 가치에 기초한 존재론적 차원의 논의는 사회의 소외계층을 돕는 사회복지직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사회복지 실천의 맥락과 사회적 조건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흐름을 반영한다(Bisman, 2004). 자본주의 사회를 인정하는 사회복지학의 한계는 있으나, 급진주의의 관점을 지향하는 흐름은 갈등주의적 시각에서 사회변화에 관심을 가져왔다. 사회적 정의나 계급적 관계와 관련된 이데올로기의 측면이 강조되는 급진적 사회복지실천은 실천현장에서의 구체성이 떨어

3) 예를 들어, 인간의 무의식적인 심리 내적 갈등에 관한 정신분석적 상담이론과 기법들은 의식 또는 전의식 단계의 상담이나 면접을 위주로 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실제로 많이 활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패러다임의 차이나 적용성의 한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진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나, 최근 실천지식과 모델이 구체화되면서 적용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반차별적 이론, 페미니즘 관점, 구조주의 사회복지실천, 임파워먼트 이론 등은 일상적인 의미와 이해들에 대항하는 데 초점을 두면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와 사회구조에 의해 내면화된 자아와 종속적 주변성에 의해 통제받는 의식을 지각하도록 도우며 개인의 의식화와 집합적 행동에 관한 실천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자 한다(Goldberg, 1974; Longres, & McLeod, 1980; Payne, 1997; Lymbery, 2001). 특히, 급진적 개별사회사업(radical casework)을 제시한 푸크(Fook, 1993)는 피상적이었던 급진적 이론을 구체적인 개별 클라이언트와의 실천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목적, 개입방법과 전략,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급진적 사회복지실천의 적용성을 높였다고 평가받는다.

이와 같이, 기능주의적인 또는 개인주의 지향의 심리사회적 접근방법으로부터 갈등주의적인 또는 집합주의 지향의 사회개혁적 접근방법까지 단일 학문 내에서 발견되는 시각의 폭이 넓은 것은 사회복지실천의 학문적 특성이 된다. 이러한 특성은 역사적으로 사회복지실천의 흐름이 개인의 적응과 사회변화라는 상이한 개입목표를 통합시키지 못하고 각기 필요한 사회과학 이론들을 선택하며 발전되어 온 배경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사회문제를 개인적 병리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적 증거들이 증가함에 따라, 특수한 역사적 상황 하에서 개인을 형성하는 사회체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개인과 사회라는 양자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적절한 대안적 지식의 모색이 이루어지면서 현실 속에 존재하는 개별적 존재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3. 새로운 지식기반의 구성

1) 학문적 정체성과 전문(직)화

존슨(Johnson, 1972)은 “전문직은 중대한 사회적 이슈들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특권을 부여받는다”고 하였다. 즉, 전문가들은 지식을 통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관점이 갖는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지식의 과학적 이론화 작업은 전문직의 정당성을 우리사회가 인정하게 함으로써 지식의 권력화를 이룬다. 결국, 지식이 그 자체의 진실성보다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신념이나 가치에 의해 인정받는 것이라고 볼 때, 학문의 순수한 목적보다는 지식의 도구적 기능이 강조되는 것이다.

지배층이나 주류문화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지식만이 권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지식과 권력의 관계는 전문직의 발전과정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문화는 지식에 대한 통제를 통해 전문적 지위를 얻으려는 집단의 노력으로 해석되기도 한다(Reiff, 1974). 이때 전문지식은 권력 관계를 통해 지식인의 지배를 합리화시키며 클라이언트를 억압하는 기체로서 작용하며, 이는 정치적, 제도적인 근대적 형태의 권력보다는 일상적이며 미시적인 권력의 개념에 가깝다(Wilding, 1982; 이혁구, 2003). 이와 같은 지식의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는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지식 자체보다는 지식이

옹호하는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해체(deconstruction)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의 본질을 탐색하고자 한다(Schön, 1983; Sands, & Nuccio, 1992). 이런 맥락에서, 후기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를 구성하는 힘인 전문가의 독점적 지식과 사회적 지배는 재조명되고 이를 추구하는 전문직들의 방향성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이 사회적 안녕에 기여하고 자신들보다 클라이언트의 필요를 중시하고 도덕성과 능력으로 책임져 왔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데 반해, 클라이언트의 비용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무시했으며 효과적으로 자신들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도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Reisch & Gorin, 2001; Wilding, 1982).

배타적인 지식과 기술의 축적을 통해 사회적 인가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사회복지직도 예외는 아니다. 즉, 사회복지직의 전문화 과정도, 다른 분야들과 매우 유사하게, 권위적이고 기술적이며 독점적인 전문직의 속성(traits)을 갖추으로써 사회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으려는 경향을 띤다. 사회복지직의 전문화에 대한 열망은 사회복지 실천이 발달해 온 지난 한 세기 동안 지속되면서, 사회복지직이 진정한 전문직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하였다. 특히 플렉스너가 지적한 전문직으로서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과학적인 이론과 방법을 찾는 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이러한 전문화의 욕구는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지면서 심리이론으로의 편향성을 보여준다(Kane, 1982; Weick, 1983).

전문화의 욕구에 따른 실천가치와 지식간의 혼란은 통합적 실천(generalist approach)을 요구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더욱 일치되지 않는 문제를 일으킨다. 즉, 개별지도나 가족치료가 발달한 미국과 달리, 임상 사회사업 교육이 활용될 장(setting)이 적은 우리나라에서는 개별지도의 이론적 배경을 가진 실천모델의 적용가능성이 적을 뿐 아니라, 왜곡된 전문가 상(professional image)으로 인해 학문의 본질적 가치와의 갈등과 직업적 정체성에 갈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학문의 내적 혼란을 초래한 배경으로 이은주(2003)는 전문성의 지향점에 대한 근본적 관심보다 사회적 인정에 급급했던 점, 우리나라의 정치적 보수성으로 인해 환경변화의 담론이 활성화되지 못한 점, 정부시책에 대한 사회복지학계의 수동적인 입장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사회적 권력관계로부터 추상화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와의 전문적 관계의 강조는 온정주의 담론이 되풀이되는 구조를 양산한다는 주장이 있다(이혁구, 2003; Thompson, 2002). 이는 도시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천현장이 급격히 늘어나고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의 변화가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천맥락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최근, 활발히 이루어져온 전문교육과정의 개발이나 전문자격제도에 관한 논의는 사회복지직의 직업적 역할을 인가받기 위한 전문직화의 필요한 과정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사회복지직의 전문화 방향에 대한 기능적 사고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욕구가 사회적으로 보장받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인식주체와 대상에 대한 담론적 구조와 사회복지직의 사회적 역할을 밝히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즉, 우리사회의 정치사회적 구조나 관료적 과정에 의해 사회복지실천학문의 가치와 윤리적 기반이 훼손되거나 사회변화에 대한 전문적 책임성이 제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사회복지전문직의 입장을 밝히고 사회변화의 중요한 주체로서 참여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겠다.

2) 실천지식의 맥락화

과학적인 실천지식이 실천현장의 문제를 다루는 데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비실증주의자들만의 주장은 아니다. 라인과 화이트(Rein & White, 1981)는 클라이언트뿐 아니라 기관과 실무를 위한 제도적 환경까지 포함하는 실천의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사회복지실천의 중심적 가치와 함께 통합된 개념 틀 속에서 고려하는 지식의 개발(knowledge building)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실무와 관련된 지식은 일반적인 사회과학보다는 직접적인 기관의 실천적 맥락(context)에서 비롯되며 실무자가 처해있는 또는 특정 문제가 언급되는 기관의 상황(제도적 환경)을 포함한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 대상을 고려하지 않는 지식(timeless, spaceless, personless knowledge)을 추구하는 이론기에 의해 실천 지식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된 실천지식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실천적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순환적 과정 속에서 사회복지실천이론이 제구성된다는 의미에서, 실천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하나의 연속적인 나선구조에 비유된다(Payne, 1997). 이는 사회복지지식이 반영론적 인식이론으로 파악하기 힘든 다양한 인간 삶의 의미와 가치에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천과정에서 연역적 논증의 지식체계로는 파악하기 힘든 실천지혜와 기예적 속성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김기덕, 2003).

셴(Schön, 1983)은 실천현장에서 관련된 연구에 관심을 갖고 접하는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전문성 개발을 추구하는 반영적 실천가(reflective practitioner)가 되기를 요구한다. 실천현장의 지식이 구체화되고 일반화되는 방법은 현장경험을 통해 개인의 주관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개인의 고유성에 적합한 변인을 찾아 인식을 구성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의 구체성을 따져볼 때 현장에서 관심 있게 이루어지는 경험적 연구의 대부분은 기술적 문제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 환경의 미비로 검증결과들이 지식의 축적과 이론화과정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최근, 실천현장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려는 연구방법에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면서, 복잡한 상황 속의 인간을 이해하는 데 보다 적절한 지식의 탐구방법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로즈(Rose, 1990)는 클라이언트가 현실을 인식하고 성찰할 수 있는 맥락화(contextualization)를, 로젝(Rojek et al, 1988)은 담론(discourse)을 통해 사회적 환경이 결정한 사고에 대한 재해석의 방법을, 푸크(Fook, 1993)는 개인의 문제에 대한 사회구조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서술적 사회조사(descriptive social history) 등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전문가의 인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클라이언트의 주관적인 삶의 경험과 현실에 의미를 두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서비스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개인이 갖는 의미체계에 초점을 두고 클라이언트의 사고과정과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독자적인 삶의 구성능력에 초점을 두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키우며 나아가 거시적인 사회적 구조 내에서 개인의 문제를 인식하도록 돕는 지식은 권위와 사회적 관계에 의해 구조화된 실천현장에서 소진되고 무력화되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에게 적극적인 실천능력을 길러주는 지적 동기가 될 것이다.

3) 실천지식의 적용

그린과 유프러스(Greene & Ephross, 1991)는 사회 제도의 개선과 클라이언트 개인을 돕는 이중적 목표를 위해서는 마치 복잡한 퍼즐조각을 맞추는 것과 같이 다양한 학문분야로부터 적절한 개념들을 채집해 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복지실천을 하나의 이론으로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대부분이 공감하는 사실이며, 실제로 사회복지 실무에서 활용되는 이론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이 다양한 개념모델과 이론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hess, & Norlin, 1991).

그러나, 다른 학문적 배경으로부터 파생된 지식이 유독 많은 사회복지실천의 이론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퍼즐게임 이상의 어려움을 동반한다. 타 학문에 관한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배경과 흐름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타학문의 지식을 차용하는 경우, 특정 이론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거나 학문적 맥락을 왜곡할 가능성마저 다분히 존재한다. 여기에서의 초점은 다른 분야로부터 지식을 빌려왔다는 것 자체보다는 이러한 지식들이 실천현장에서 의미를 갖고 적합한 사회복지실천이론들로서 선택되고 활용되는가?라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이들 실천이론이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을 반영하는 지식체계로서 내적일관성을 증가시키며 학문적 정체성을 찾는 데 기여하는가?라는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발생하는 인간의 문제에 비해 대부분의 실천이론이 갖는 편향적 속성 또는 모호성 때문에, 임상적 지식(clinical knowledge)과 실천활동(social work activity)간의 이론적 균형을 유지하며 복합적인 상황속의 인간을 응집력 있게 설명해 줄 단일 이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특정이론보다는 다양한 지식들의 적절한 선택과 지식체계를 재구조화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론을 선택하고 실천에 적용하는 방법의 하나로 페인(Payne, 1997)은 이론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선택주의로서, 하나의 이론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복잡한 실천 상황을 하나의 이론이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나, 기관이나 실천가의 의지에 따라 특정이론을 고수하기도 하며 결과적으로 선택된 이론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사용으로 익숙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심리치료나 알코올·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과 같은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미시적인 개입을 하는 사회복지사에게는 유용한 방법일 수 있다. 단, 특정 모델이나 기법에 단순히 익숙해지는 경우, 전체적인 맥락과 다양한 이론적 이해 속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에 가장 적절한 접근과 기술을 선택하는 데 제한적일 수 있다. 둘째는 절충주의로, 이론의 구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론의 적용에 있어서도 여러 이론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생태체계이론가들이 하나의 이론적 개념 틀로 다양한 이론들을 통합시키는 절충적 시도를 하는 데 반해, 절충주의자들은 사회복지실천의 이론적 다양성을 학문적 특성으로 인정하고 선택의 문제로 인식한다. 여러 이론들을 부분적으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법론적 다원주의자들의 입장은 지식을 통한 진리의 발견보다는 실용적인 결과에 더 의미를 두며, 주어진 실천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이론과 방법을 찾아 적용하는 데에 의미를 둔다. 다양한 임상모델의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있는 도프만(Dorfman, 1988)도 사회복지 전문직이 환경 속에서 개인을 바라보는 관점과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공통점 이상의 것을 기대하

지 않기를 요구한다. 통합된 정체성보다는 다양한 인식론적 입장을 통해 사회복지 실천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며 변화되는 이론과 지식을 수용하는 것이 사회복지 전문직의 특성에 맞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절충주의에는 특정 사례에 여러 이론을 동시에 적용하는 일반적인 방법과 각 사례마다 다른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이론들 간의 효과성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상이한 입장에 놓인 가치개념이나 관점들 간의 비교를 통해 현재의 실천상황을 대비시키면서 이론적 분석을 하는 방법은 이론이 갖는 유용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론들이 기초하는 시각이나 맥락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론들을 단순히 조합하는 절충적 방식은 학문의 본질로부터 멀어지거나 실천의 일관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타학문에 기반을 둔 모델들에 대한 이론적 이해가 불충분하며 개념들에 대한 평가가 비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도구적 차원에서 제한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다. 선택주의나 절충주의 방식이 갖는 한계가 크게 인식됨에 따라, 다양한 실천과정에서 일관된 해석을 통해 개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도 커지고 있다.

<표 1> 사회복지실천모델의 분석틀(A Framework for Analysis of Practice Mod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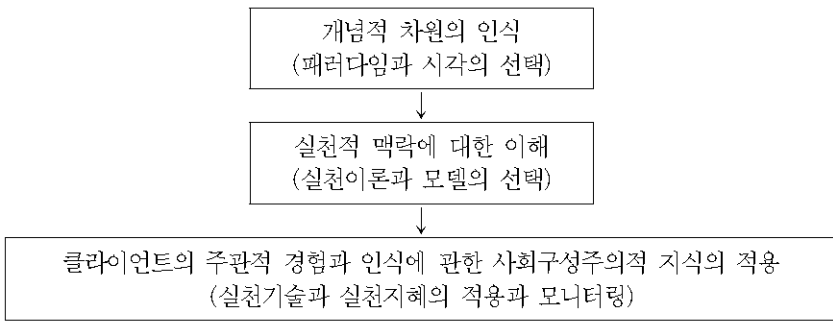
실천이론의 분석항목	실천모델 A	실천모델 B	실천모델 C
이념적 기반 (Ideological biases)			
가치 (Values)			
이론적 기초 (Knowledge base)			
관심의 단위 (Unit of attention)			
문제의 정의 (Problem definition)			
일관되며 명료한 개입방법 (Congruent and explicit interventions)			
전문적 관계의 활용 (Uses of the professional relationship)			
기대되는 결과 (Desired outcomes)			
시간소요 (Uses of time)			
실무자의 활용범위 (Differential use of staff)			
자조집단과의 활동 (Work with self-help groups)			
효과성 연구의 가능성 (Availability to effectiveness research)			

생태체계이론가들은 생태체계 이론이, 관점 또는 시각으로서, 구체적인 모델과 기술을 제공할 수 없는 수준의 이론이라는 한계를 인정하고, 체계적인 이론적 개념 틀(theoretical conceptual

framework)을 마련하는 데에 의의를 둔다(Mattani, 1995). 대표적인 생태체계론자인 마이어(Meyer, 1983)가 제시한 사회복지실천모델의 분석틀(A Framework for Analysis of Practice Models)은 상이한 실천이론들을 비교하는 표준화된 범주로서 유용하다. 이 분석틀은 체계적인 관점을 기준으로 앞에서 분류한 이론의 구조적 특성이나 인식론적 속성, 이념적 기반 등을 분석하기 위한 항목들을 포괄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이론적 특성을 평가하고 각 모델을 비교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적절한 이론의 선택을 돕는다(표 1). 구체적으로, 분석표의 이념적 기반이나 가치, 문제의 정의 등은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에 관한 분석을 위한 것이다. 개입방법이나 시간소요, 실무자의 활용, 자조집단의 활동 등은 실천 방법과 관련된 각 이론의 특징을 파악하며, 효과성연구의 가능성은 이론이 갖는 인식론적 속성을 분석하고 있다.

관심 있는 이론을 중심으로 이러한 분석틀을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나가는 것은 펼쳐진 지식을 정리하며 실천지식의 분석적 이해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페인(Payne, 1997)은 관점과 모델이 일관되며 동시에 제공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이론으로서의 합당한 근거와 실용성을 잃는다고 주장한다. 즉, 생태체계적 관점과 같이 개방된 개념 틀만을 제시하고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개인, 집단, 지역사회 또는 거시적, 미시적) 수준에서 다양한 종류의 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직접적, 간접적) 개입방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간과 사회를 보는 관점의 차이를 반영하는 모델과 기술의 선택에 혼란을 초래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실천의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Dore, 1990; Meyer, 1987; Germain & Gitterman, 1987). 즉, 어떤 사회과학적 이론도 구성된 개념 틀에 의해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레퍼토리(repertoire)로 수용될 수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다양한 관점과 형태의 지식들이 선택되고 통합되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설득력을 잃는다.

이와 같은 논리는 변화하는 사회와 다양한 현장의 욕구를 반영함으로써 학문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반면, 가치기반의 학문인 사회복지학의 이론적 통합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즉, 쿤(Kuhn, 1972)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론들 간의 비양립성의 한계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통합적 접근은 단순한 형태의 절충을 넘어 모델의 통합성, 체계성, 포괄성을 강조하며 우발적이지 않은 경험 지향적 실천을 지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osen, 1988). 그러나, 현재의 절충적 입장은 '사회복지실천의 전문가적 가치와 목적을 수용하고 인간과 환경의 이중적 초점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회복지의 본질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타학문으로부터의 실천이론과 모델들을 무리 없이 통합시킬 수 있다'라는 무책임한 가정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단선적 이론을 비판하며 상황 중심적이며 체계적인 사고로의 전이를 기본전체로 하는 생태체계적 관점은 단선적이며 결정론적인 심리치료 모델들과 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시각을 달리한다. 한편, 생태체계적 접근의 자유주의 시각은 상호 교류(transaction)에서 발생하는 체계간의 힘의 역학관계나 갈등을 간과하고 사회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기 때문에 급진적 모델의 인식 틀과 일치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실천의 중심 가치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이론과 모델이 갖는 근본적인 시각과 접근의 차이를 소홀히 다루었다는 모순이 지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지적되고 있다(Gould, 1987, Wakefield, 1996a, 1996b).



<그림 3> 지식의 선택과정

학문의 외적 경계가 모호하며 학문의 내적 일관성이 적은 사회복지실천학문의 지식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인식과 실천과정 내에서 지식의 위계적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거시적 가치와 미시적 기술 간의 내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실천지식의 구성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각 수준의 지식이 갖는 학문적 역할에 따라, 추상적 수준의 실천적 가치를 반영하는 패러다임이나 시각으로부터 실천현장의 구체성을 반영하는 실천기술이나 실천지혜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나가는 방법이 유용한 듯 하다. 이러한 접근방식에서 학문적 정체성과 실천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한 첫 출발점은 기초가 되는 이론적 패러다임을 명확히 하는 것일 수 있다(Mattini, 1995).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식의 선택을 위한 첫 단계는 자신의 기초적인 이론적, 경험적 이해를 기초로 패러다임을 선택하고 이 틀에 적합한 이론들을 고려하는 개념적 차원의 인식형성 과정이 될 수 있다. 다음 단계는, 관점과 시각을 제공하는 기초이론을 구체적인 서비스체계나 기관 등의 환경적 맥락 안으로 끌어들이며 동일한 인식의 범주 내에서 적절한 중범위 이론과 지식들을 선택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면서 점차 보편적인 합의가 줄어드는 문제를 인식하며 선택된 기술의 적용과정을 각 사례에 맞춰 모니터링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는 자신의 이론적 선택을 경험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과정으로서 뿐 아니라 실천현장의 지식을 이론화하는 과정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마지막 단계는, 실천현장에서 경험하는 클라이언트의 삶의 방식과 문제인식과정 등이 강조되면서, 개인의 주관적인 현실과 사회적 상황의 의미를 파악하는 사회복지사의 해석과 통찰능력⁴⁾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선택 단계마다 사회문제를 보는 시각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접근방법, 이론, 모델과 같은 이론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의 맥락을 선택된 시각 내에서 수용하는 가운데 산재된 지식들의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단절적인 지식은 다원화되는 실천현장의 욕구에 반응하면서 객관적인 개입의 근거로서 활용되었으나, 사회복지실천의 중심적 가치와 원칙에 기초하는 준거 틀(frame of reference) 내에서 통합되지 않는 현상을 보여 왔다. 또한 상위수준의 사회복지적인

4) 푸크(Fook, 1993)는 클라이언트의 삶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심리적 또는 직접적인 사회 환경적 측면 뿐 아니라 물질적, 물리적, 계층적 측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계층내의 하위문화나 가치적 요소, 사회적 낙인, 종교적 가치, 비주류집단으로서의 경험, 직업이나 교육 수준 등에 대한 탐색을 요구한다.

가치와 이론적 지식과의 연결성을 갖고자 하는 인식과 노력이 부족한 경우, 구체적인 실천현장의 지식과 기술은 기존의 전통적인 치료적 패러다임과 기능적 접근방식으로 전이되며 규범적인 전문가의 태도나 진단적인 접근방식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실천의 주요 구성요소인 가치와 지식, 기술의 균형 잡힌 삼각구조보다는, 지식의 구성수준에 따라 개념적 차원의 인식을 결정하는 가치가 선택되고, 실천적 이해를 돕는 이론과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유도하는 기술적 지식이 단계적으로 선택될 필요성이 있다. 이 경우, 의료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기술적 지식의 역할과 유용성을 명확히 정의하는 한편, 사회복지직에 부여된 사회적 기능과 목적, 본질적 가치를 구체화시키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실천현장의 맥락을 반영하는 실천기술의 레퍼토리(repertoire)⁵⁾를 풍부하게 개발해야 하는 과업이 중요하게 다가온다.

4. 결 론

사회복지사들은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어떻게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가를 이해하기 위해, 개입의 지침을 얻고 그에 따르는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이론적 지식을 사용한다”고 한다(Greene & Ephross, 1991). 문제는 실천과 관련된 지식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며, 이론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지식들 간의 통합성이 결여됨으로써 내부적으로 학문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외부적으로 학문적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사회복지실천의 내재적 특성이며 태생적 한계로 받아들여진다면, 사회복지실천학문에서 단일한 이론체계를 구성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다양한 인식들을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도 무의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지식적 기반에 대한 평가나 담론형성의 분위기가 미숙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실천학문의 지식기반에 관한 혼재된 개념들을 검토하고 학문적 성격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사회복지실천의 지식체계를 만들고 학문적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 한 발 다가가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실천학문의 역사와 함께 지속되고 있는 인식론적 논쟁과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에 관한 분석을 통해, 사회변화에 민감한 실천현장의 상황적 맥락에 따라 지식의 선택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는 한편, 사회복지실천의 역사적 사명(historical obligation)이나 본질적 의미에 관한 존재론적(ontological) 질문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단절적인 실천지식을 제공하는 다수의 중범위 이론(middle range theory)과 기술적인 개입방법을 중심으로 실천지식을 확대해 나가는 현재의 학문수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사회복지실천의 이론적 기반이나 학문적 성격에 관한 탐구적인 자세가 지식의 선택과정에서 가져야 하는 의미도 살펴보았다(Brekke, 1986; Loewenberg, 1984).

성숙된 전문직은 전문직의 목적에 적절하고 의미 있게 지식을 구성하는 방식을 갖는다고 한다

5) 관련된 실천기술로는 환경적 접근 또는 간접적 개입으로 알려진 서비스조정이나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의 개발, 사회의 인식과 구조의 개선을 위한 활동들 속에서 파악되는 중개, 옹호, 중재, 사회행동의 기술 등이 포함된다(Miley & et al, 2001; Zastrow, 1995).

(Barlett, 1970). 변화하는 사회에서 중요한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데 필요한 학문적 정체성과 공통된 사고를 찾는 노력이 있을 때, 지식은 도구적 차원을 넘어 전문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론적 논쟁을 통해 살펴보았던 앞의 방식과 시각들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우리 주변에 산재한 실천 지식들을 모으고 분류하며 그 의미를 우리의 학문적 방식에 맞게 재단하는 작업은 사회복지실천 학문의 발전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고미영. 2003. "사회복지 지식의 정치성과 예술성",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상황과 복지』T5: 45-79.
- 김기덕. 2003. "사회복지 지식의 인식론적 기초", 『상황과 복지』T5: 13-43.
- 김인숙. 2004.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33-53.
- 오정수. 1997. "사회복지학 접근방법의 이중구조와 정합적 접근전망", 『상황과 복지』T2: 131-158.
- 이은주. 2003.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과 정체성 확립에 대한 고찰", 『상황과 복지』T6: 203-245.
- 이혁구. 2003. "푸코의 권력학으로 본 사회복지학의 새로운 지평모색", 『상황과 복지』T5: 81-110.
- 정무성. 2004. "한국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정체성 위기와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67-91.
- 홍경준. 2002. "한국 사회복지학계 연구방법론의 동향", 『상황과 복지』T3: 13-32.
- Austin, D. M. 1986. *A History of Social Work Educ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 Bartlett, H. M. 1970. *The Common Base of Social Work Practice*. Silver Spring, MD: NASW Inc.
- Bisman, C. 2004. "Social work values",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4: 109-123.
- Brekke, J. 1986. "Scientific imperatives in social work research: Pluralism is not skepticism", *Social Service Review* 60: 538-554.
- Chess, W. and Nurlin, J. 1991. *Human Behavior and the Social Environment: A Social Systems Model*. Boston: Allyn and Bacon.
-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1992a. *Curriculum Policy Statement for Baccalaureate Degree Programs in Social Work Education*. Alexandria, VA: CSWE.
-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1992b. *Curriculum Policy Statement for Master's Degree Programs in Social Work Education*. Alexandria, VA: CSWE.
- Dorfman, R. 1988. *Paradigms of Clinical Social Work*. Brunner/Mazel Publishers.
- Dore, M. 1990. "Functional theory: Its history and influence on contemporary social work practice", *Social Service Review* 64(3): 358-374.
- Fook, J. 1993. *Radical Casework: A Theory of Practice*. Allen and Unwin.
- Germain, C. and Gitterman, A. 1987. "Life model versus conflict model", *Social Work* 32: 552-553.
- Germain, C. and Gitterman, A. 1980. *The Life Model of Social Work Pract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oldberg, G. 1974. "Structural approach to practice: a new models", *Social Work* 19: 150-155.
- Goldstein, E. G. 1984. *Ego Psychology and Social Work Practice*. New York: Free Press.

- Gould, K. 1987. "Life model versus conflict model: A feminist perspective". *Social Work* 32: 346-351.
- Greene, R. and Ephross, P. 1991. *Human Behavior Theory and Social Work Practice*. New York: Aldine De Gruyter.
- Heineman, M. 1981. "The absolute scientific imperative in social work research". *Social Service Review* 66: 371-395.
- Hepworth, D. H., Rooney, R. H., and Larsen, J. A., 1997. *Direct Social Work Practice: Theory and Skills*. Wadsworth Publishing.
- Hudson, W. 1978. "First axioms of treatment". *Social Work* 23: 65-66.
- Imre, R. 1984. "The nature of knowledge in social work". *Social Work* 29: 41-45.
- Johnson, T. 1972. *Professions and Power*. Macmillan Press.
- Jones, C. 1996. *Anti-intellectualism and the peculiarities of British social work education*. N. Parton (Ed.) *Social Theory, Social Change and Social Work*. New York: Routledge.
- Kane, R. 1982. "Lessons for social work from the medical model: a viewpoint for practice". *Social Work* 27: 315-321.
- Longres, J. and McLeod, E. 1980. "Consciousness-raising and social work practice". *Social Casework* 61(5): 267-276.
- Lowenberg, F. 1984. "Professional ideology, middle range theories and knowledge building for social work practice".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14: 309-322.
- Lymbery, M. 2001. "Social work at the crossroads".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1: 369-384.
- Mattani, M. 1995. "Knowledge for practice". C. Meyer and M. Mattani (Eds.) *The Foundations of Social Work Practice*. NASW Press.
- Meyer, C. H. 1987. Direct practice in social work: Overview. *Encyclopedia of Social Work*. NASW Press
- Meyer, C. H. 1983. "Introduction". C. H. Meyer (Ed.) *Clinical social work in the eco-systems perspectiv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Meyer, C. H. 1976. "The changing concept of individualized services". R. Klenk and R. Ryan (Eds.) *The Practice of Social Work*.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
- Miley, K., Melia, M., and DuBois, B., 2001.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An Empowering Approach*.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 Payne, M. 1991. *Modern Social Work Theory*. Macmillan Press.
- Peile, C. 1988. "Research paradigms in social work: From stalemate to creative synthesis". *Social Service Review* 62: 1-20.
- Perlman, H. 1965. "Social work method: A review of the past decade." *Social Work* 10(4): 166-178.
- Reamer, F. 1983. "The concept of paternalism in social work". *Social Service Review* 57: 254-271.
- Reiff, R. 1974. "The control of knowledge: The power of the helping professions".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10(3): 451-461.
- Reid, W. J. 1992. *Task Strateg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Rein, M. and White, S. 1981. "Knowledge for practice." *Social Service Review* 55: 4-21.
- Reisch, M. and Gorin, S. 2001. "Nature of social work and future of social work profession". *Social Work* 46(1): 9-19.

- Rojek, C., Peacock, G. and Collins, S. 1988. *Social Work and Received Ideas*. London: Routledge.
- Rose, S. 1990. "Advocacy/empowerment: An approach to clinical practice for social work".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17(2): 41-52.
- Rosen, H., 1988. Evolving a personal philosophy of practice: Towards eclecticism. R. Dorfman (Ed.) *Paradigms of Clinical Social Work*. New York: Brunner/Mazel.
- Saleeby, D. 1994. "Culture, theory, and narrative: The intersection of meaning in practice". *Social Work* 39(4): 351-359.
- Sands, R. and Nuccio, K., 1992. "Postmodern feminist theory and social work". *Social Work* 37(6): 489-494.
- Schön, D. 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 New York: Basic Books.
- Siporin, M. 1988. "Clinical social work as art form". *Social Casework* 69: 177-185.
- Scott, D. 1990. "Practice wisdom: The neglected source of practice research". *Social Work* 35(6): 564-568.
- Thompson, N. 2002. "Social movements, social justice and social work".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2: 711-722.
- Videka-Sherman, L. and Reid, W., 1990. *Advances in Clinical Social Work Research*. NASW Press.
- Wakefield, J. 1996a. "Does social work need the eco-systems perspective?". *Social Service Review* 70(1): 1-32.
- _____. 1996b. "Does social work need the eco-systems perspective?". *Social Service Review* 70(2): 183-213.
- Waltz, T. and Groze, V. 1991. "The mission of social work revisited: An agenda for the 1990's". *Social Work* 36(6): 500-504.
- Weick, A. 1983. "Issues in overturning a medical model of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28: 467-471.
- Wilding, P. 1982. *Professional Power and Social Welfar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Zastrow, C. 1995. *The Practice of Social Work*. Pacific Grove, CA: Brooks/Cole Publishing Co.

Rethinking Knowledge Base of Social Work Practice

Hong, Seon-Mee
(Hanshin University)

As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of social work practice, knowledge articulates what the social work profession is doing and ought to do. With an emphasis on building a body of knowledge for the profession, this study analyses the nature of social work knowledge. First, the study examines concepts of social work theories and models, which are built around separate clusters of concepts from a broad base of theoretical orientation. The study reviews epistemological and ideological debates over how to perceive and approach social issues and the role of the social work profession. In organizing a clear conceptual framework for social work practice, different frames of reference and selective and fragmentary knowledge from other disciplines are considered barriers. For the development of a clear identity as a unified profession and the prospects of a value-based profession, more attention needs to be given to specify practical knowledge that is contextual and appropriate to practice settings and more sensitive to social issues.

Key words: practice theory, knowledge for practice, knowledge base

[접수일 2004. 8. 30. 게재확정일 2004. 11. 3.]